

“학생, 학생! 일어나요. 종점이야.”

비몽사몽 아직 덜 깬 머리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부랴부랴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다. 평소보다 늦게 끝난 아르바이트에 코앞에서 놓쳐 버린 버스까지. 오늘 하루에 한 달 치 액땜을 했다고 생각했다.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아니 그보다 당장 닥친 대학교 등록금을 모으는 일에 다른 생각이 들 새도 없었다. 11시가 조금 넘어간 늦은 저녁에 가로등하나 없어 어두컴컴한 벚나무 길에는 큼지막한 선거 현수막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선거철인가. 딱 그 정도의 관심.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후보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진수야!”

교통카드에 잔액이 얼마쯤 남았는지 계산하며 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돌리니 집과 조금 떨어진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나에게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가 혼자서 술을?’ 중학교에 입학한 이래 어머니와 이혼하신 이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던 아버지였다. 그리고 정말 그 후로 한 번도 술 냄새가 난 적이 없었다. 어쩌면 형, 누나, 나, 동생까지 4남매를 키우셔야 했기에 소주 한잔 마실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사무실로 걸어가니 거기에는 절반 정도 남은 소주병 외에 빈 병이 2개나 더 있었다.

“뭘 일이에요.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이리로 와 봐.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보게.”

머리도 어지럽고 피곤하기 그지없어 빨리 자고 싶었지만, 주말엔 쉬기도 하고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아들, 전역한 지 두 달이나 됐는데, 아빠랑 마주 본 적이 없네?”

“아버지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

햇수로 8년.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이후로 대학 입학부터 군 입대까지 아버지와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그의 셋째 아들. 은연중에 느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독립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후로 바쁘다며 생긴 10년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질 않았다. 아버지와 가까워지자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내 스스로 먹고살아야 한다는 신념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어느새 멀어져 있었다. 아버지도 느꼈을 텐데, 안 마시던 술까지 마

시고 먼저 보자는 말을 할 만큼 중요한 얘기가 있던가.

“진수야.”

한숨 섞인 아버지의 말에서 나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다. 짧은 순간 동안 불행한 상상이 머릿속에 파고들어 왔다. ‘집이 파산됐나? 내가 모르던 빚이 있던가? 동생이 사고라도 쳤나? 혹시 어디 아프신가? 지금 내가 돈이…….’ 아버지가 입술을 떼기만 기다리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한참을 내 얼굴만 지켜보던 아버지는 책상 위에 있던 봉투를 나한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다. 열어 둔 봉투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 10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가질 않아 계속 봉투 속 돈만 쳐다보니 아버지가 마시다 말고 내 손을 잡았다. 농기계를 고치시는 아버지의 손은 기름 때문에 미끄러우면서 굳은살 때문에 거칠게 느껴졌다.

“너희들에게 잘해 준 아빠가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어. 그래도 평생을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았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서 해준 얘기는 이랬다. 오늘 낮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손님이 선거 후보 중에 자신의 친족이 출마했다며 오는 사람들에게 잘 말해 달라고 하고 수리 비용보다 60만 원을 더 주고 갔다는 것이다.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기에 어리둥절하셨던 아버지는 저녁에 가게부를 작성하면서 아셨다고 한다. 수리 비용보다 더 많이 계산했다고 바로 전화했지만, 그분은 여태 동안 기계를 잘 수리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만 했다고 한다. 늦은 시간에 찾아갈 순 없고,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아 혼자서 전전긍긍하셨다고 한다.

“그게 뭐,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솔직히 안심했다. 대놓고 준 청탁금도 아니고, 공무원끼리의 사이가 아니니 걸릴 일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60만원이면…….

“저 2학기 등록금 4분기 납부금 부족하지 않아요?”

내 대학등록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정도였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다시 종이컵을 드셨다.

“돈은 돌려줄 거다. 그런데 나도 받고 나니까 네 등록금 생각이 나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더라. 괜찮지 않을까, 이번 한 번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혹시 여태 잘했다고 나한테 떨어진 행운이 아닌가 하고.”

아버지는 죽을죄라도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셨다. 그래, 어쩌면 불쌍하게 여긴 무언가가 우리한테 준 선물일지도.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하지 않나. 이런 작은 시골까지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나는 봉투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 뒀다.

“아버지, 저는…….”

“진수야,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어. 그런데 사람이 가슴속에 한번 멍이 들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더라고. 만약 이 일로 네가 대학교에 복학한다 해도 후에 너네 4남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평생 시달려서 살 수밖에 없어.”

그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고민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아,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는 건 돌려줄까 말까가 아니구나, 그 잠깐의 고민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는 건 아닐까 때문이구나.’ 나한테 한없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눈도 못 마주치는 아버지에게 나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하늘이 멍든 것처럼 퍼렇게 될 때까지 같이 있어 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손님에게 봉투 그대로 다시 갖다주었다. 그럼에도 시원치 않으신지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싶어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결심을 하시고 전말을 쓴 종이를 봉투에 넣고 해 뜨자마자 가신다고 하셨다. 그다음 날, 혹시나 하는 일에 나는 아버지와 같이 경찰서로 갔다. 그날 경찰서에는 웬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았고 한참 시끄러웠다. 작은 시골 경찰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은 흔치 않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서를 나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다.

“아니, 저는 원래부터 A후보를…….”

역시나, 아버지가 신고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아버지는 자기도 진술해야 한다며 들어가려 하셨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아버지, 굶어 부스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가 당당하시면 됐잖아요. 아버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받으셨고, 알고 나서는 바로 돌려주셨

어요. 그럼 됐어요.”

아버지는 찻잔을 들고 나와 단둘이 순대국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같은 상에서 먹는 밥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와 동생이 치킨을 시켜 놓고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둘 다 아직 안 자고 뭐해?”

“형, 아빠 상 받았어.”

동생이 내 눈앞에 갑자기 들이민 투명한 감사패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을에서 주는 인기상 같은 거라고 아버지가 씩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렇게 웃으시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웃을 갈아입고 씻으러 나오자마자 나와 동생을 나란히 앉힌 채 치킨 닭다리를 하나씩 쥐여 주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하셨다.

“진수야, 만약 그때 그거 받았더라면 이 상을 못 받았겠지?”

아버지가 하는 말에 나는 치킨을 먹다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응이 시원치 않자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다.

“상에 자녀 장학금이 딸려 오더라. 네 등록금 낼 수 있을 만큼.”

“네? 정말요?”

“그래, 아빠 좀 멋있냐?”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자랑스럽게 통장을 꺼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다.

지금은 동생도 나도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버지는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며, 이제는 늦게나마 노후를 준비하신다. 더 잘된 일도, 더 나쁜 일도 없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다. 나는 아버지와 의 일화에서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착한 일 후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돈에 허덕이고 있고, 착한 일 하고도 악재가 생기는 경우도 수도 없이 느껴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느낀 ‘청렴’이 지닌 의미를 얘기하고 싶다. 그 청렴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씀처럼 가슴속에 명이 생기지 않기 위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바로 ‘청렴’이 지닌 의미가 아닐까.